



나이지리아(Nigeria) 동북 지역을 위한 긴급 구호

나이지리아 동북 지역에 정부군과 탈레반 반군의 오랜 내전으로 인해 2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고, 나머지 15,000여 명의 기독교인들도 반군의 공격과 가뭄으로 생존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제 오픈도어는 아래와 같은 사역으로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것입니다.

- 두 달간의 생존이 가능한 식량(옥수수 100kg과 콩 50kg) 배급과 약간의 현금 제공.
- 기독교 공동체가 머무는 지역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외부의 공격에 대비.
- 가장 기초적 생필품(문구류, 가방 등)과 시설을 제공.
- 국제오픈도어는 앞으로 7-9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이후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반군의 공격이 중부 지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 긴급 지원 이후에도 약 3천 가정 15,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의 정착에 필요한 막대한 지원과 후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문의 : 02-596-3171,
opendoorkorea@gmail.com
▶ 후원계좌 : 은행 :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 223-13-02233-5
예금주 : 김성태(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인내와 헌신으로 세상을 밝히는 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등록번호 성목 라 00066) 부록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시 11 : 4, 5)

중앙아시아(Central Asia)

1일(수)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하미다(Hamida)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켰은 이유로 고통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무슬림인 남편과 친척들로부터 매질과 모욕을 당해 온 것입니다. 최근 남편은 강제로 하미다를 창고에 4일간 가두고 쫓아 내었습니다. 3명의 아이와 집을 남겨두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과 영혼이 말씀과 기도, 또 사랑 안에서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로운 보금자리와 새로운 삶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일(목) 타지키스탄(Tajikistan)
현지 한 교회 지도자의 기도 요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타지키스탄의 기독교인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비밀경찰과 해당 정부는 교회 건물에 감시 카메라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기독교 신자들에게 용기와 평화를 주시고 타지키스탄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일(금) 중앙아시아(Central Asia)
사메다(Smeda, 23)는 어머니, 여동생, 갓난 아기를 데리고 작은 숙소 방

에서 물과 가스 공급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삶의 터전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머니 아리자(Ariza)는 뇌졸중을 앓고 있습니다. 빈곤과, 열악한 환경, 어머니의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사메다가 원래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지치고 깨어진 삶에 안식과 위로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일(토) 중앙아시아(Central Asia)
근경에 처한 중앙아시아 현지인 부부 사역자 탐마르(Tammar)와 나디네(Nadine)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위구르인(Uyghur) 18명이 찾아와 세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한 외국인 목사가 세례식 행사를 기획하여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설교를 하게 되었고, 이는 곧 체포와 감금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풀려나긴 했지만, 앞으로의 사역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지혜로 사역하고, 더욱더 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북한(North Korea)

5일(일) 북한(North Korea)
북한 내 지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외부로부터 강한 압박과 제재에 시달리는 북한은 이를 빌미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을 괴롭히고 중국 내 탈북자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한 활동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위협 속에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6일(월) 북한(North Korea)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열강들의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어떤 강한 세력이나 국가가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한반도 평화를 주셔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동남아시아(SEA)

7일(화) 필리핀남부(Southern Philippines)
이슬람 분리 과격단체, 아부사야프(Abu Sayyaf)에 의한 바실란(Basilan)

공격으로 9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를 내었습니다. 더욱이 군대가 이 지역의 주민과 근처 마을 사람들을 강제 피난 시킴으로 난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바실란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피 센터가 난민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잘 제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8일(수) 필리핀남부(Southern Philippines)
메이(May)는 오빠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타우성 부족인(Tausung Tribe)입니다. 무슬림인 타우성 부족 가운데 예수의 이름은 폭력과 고난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박해는 곧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메이가 용감하게 주를 붙들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여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9일(목) 부탄(Bhutan)
부탄 내 2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은 불교도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과 아름다움의 옷을 입은 이 땅은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어두운 곳입니다. 더욱이 부탄의 기독교인들을 양육할 사역자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부탄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일(금) 미얀마(Myanmar)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불교배경의신자(BBBs) 탄님(Tanim)의 집과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습니다. 재판 남았고 탄님과 그 가족들은 교회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굳은 각오와 결심, 성령의 불드심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탄님의 가족이 안식처를 되찾고 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박해와 직면해 있는 미얀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1일(토) 미얀마(Myanmar)
로HING야족(Rohinya)은 미얀마 서부 아라칸 주의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 민족입니다. 최근 미얀마 군의 반인륜적인 탄압이 보고되었습니다. 로HING야족을 상대로 다중적인 살인과 집단 성폭행이 이루어졌음을 UN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14만 2천 명의 로HING야 난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슬림 민족인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2일(일) 몰디브(Maldives)
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많은 11세 정도의 어린이가 성관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혼 남성들은 다른 여자와의 접촉을 당연시 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100% 무슬림 국가임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휴양지 몰디브에 빛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기

도해 주세요. 음란과 어둠의 문화가 정의와 사랑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3일(월) 라오스(Laos)

라오스 북쪽 지역의 가정교회들이 정부에 의해서 폐쇄 조치 되었고, 목사들은 강제로 예배 활동 중단 서약서에 사인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빈곤하고 의료 시설과의 거리가 멀어 적절한 교육 및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난과 소의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4일(화) 베트남(Vietnam)

방 아타오(Vang Atao)는 자신의 형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자, 사람들과 함께 형의 가족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형의 며느리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자 그녀를 강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믿음 때문에 깨지고 상한 이 가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베트남의 8백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프리카(Africa)

15일(일) 에리트레아(Eritrea)

올해 6월의 에리트레아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자의적 체포, 무차별 억류, 납치, 노예화 등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인권 보고관은 에리트레아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한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정부는 인권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리트레아 시민들의 취약한 인권을 위해서, 특별히 차별과 학대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0월과 동일)

16일(목) 에리트레아(Eritrea)

기독교인 여성 페카두(Fekadu)는 믿음으로 감옥에 투옥된 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렸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남편과 4명의 아이들을 남기고 8월 10일에 멘다페라(Mendefera)에 묻혔습니다. 아디쿠알라(Adi Quala) 지역에 불어닥친 기독교인 집단 구속 운동 때, 페카두는 구속되었습니다. *에리트레아의 불쌍한 그리스도인들과 페카두의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7일(금) 케냐(kenya)

플라니족(Fulani): 플라니족은 99%가 무슬림인 유목 민족으로, 주로 나이지리아, 말리, 기니, 카메룬, 니제르에 거주합니다. 이들은 가장 열렬한 극단적 이슬람교도이기도 합니다. 12세에 소녀는 결혼을 하며, 일부다

처제의 문화 속에서 고통 당합니다. 이 종족 내 소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통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갈(Hagar)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종족 가운데 비추이기를 기도해 주세요.” (10월호 그대로)

18일(토)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동남부에 위치한 감보(Gambo)에서는 지난 7월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80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병원 내 환자들과 근로자들 및 감보에서 30km 떨어진 마보(Mabo) 지역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던 조셉 토큰(Joseph Tokon) 목사도 이 사건의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또한 UN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전체 인구 4백만 명 가운데 약 60만 명이 국내 난민이라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19일(일) 콩고(DRC)

이슬람무장민중연합단체는 북부 키부(Kivu) 지역의 대다수 기독교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을 활동 거점으로 삼는데 성공했으며, 수백만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 지역에 교회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지난 7월 기독교인 가정에 생필품과 구호품들을 전달했습니다. *북부 키부 지역 및 콩고의 모든 지역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힘겨운 상황에서도 콩고 땅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0일(월) 말리(Mali)

말리 밖의 주요인인 이슬람 탄압으로 인해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억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북부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남부에 위치한 수도 바마코(Bamako)나 중부지방의 마을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에서조차 난민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1일(화) 나이지리아(Nigeria)

2012년 4월 보코하람(Boko Haram) 무장군인들이 데보라 셰티마(Deborah Shettima)의 집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의 남편이 살해당했고, 두 딸이 납치되었습니다. 석 달 후 또 다른 무장괴한들이 찾

아와 그녀의 아들마저 살해했습니다. *납치된 두 딸의 생사가 확인되고,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데모라가 눈 질병을 앓고 있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정확한 병명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데보라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22일(수) 나이지리아(Nigeria)

한 무슬림 남성들이 기독교인 가정에 침입해 집 주인 바바 칼 단칼리(Baba Kale Dankali/62세)를 살해했습니다. 아들 미가 칼(Micah Kale/30세)은 총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 죽은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슬픔으로 울부짖고 있는 아들을 향해 괴한들이 다시 집으로 들이닥쳐 그마저 살해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두 아내와 아이들은 도망쳤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들을 하나님을 통해 위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동(MENA)

23일(월) 시리아(Syria)

계속되는 내전으로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시리아를 떠났기 때문에 신자들을 돌보고 가르칠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쟁과 폭파로 많은 교회가 손상되었고,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겨운 상황의 연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는데, 이 힘겨운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고통 중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월호와 동일)

24일(금) 알제리(Algeria)

몇 주전, 알제리의 한 무슬림 여성이 온라인을 통해 성경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말씀에 이끌려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슬림배경신자(MBB)가 되었고, 더 큰 진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25일(토) 튀니지(Tunisia)

목센(Mochsen)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의 유일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 있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목센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6일(일) 이라크(Iraq)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일부 도시와 마을의 재건을 위한 예산 부족과 보안상의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일부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신앙고백보다는 민족과 종파에 더 관심을 가져 일치와 화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도시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라크 교회 지도자들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10월호와 동일)

27일(월) 시리아(Syria)

시리아의 서부 홈스(Homs)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 여섯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들은 오픈도어의 프로젝트를 통해 부서진 가옥이 수리되고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픈도어를 통해 이들은 임대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도시 전체가 하루속히 재건되어 이 기독교인 가정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28일(화) 예멘(Yemen)

예멘에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이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고, 각지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의료 구호품들이 필요로 하는 병원과 지역으로 잘 전달되고, 식량, 식수뿐 아니라 다른 구호물품들도 국경과 검문소를 잘 통과해 지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9일(수) 리비아(Libya)

기독교 신앙에서 다시 이슬람으로 재-개종한 한 청년은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 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여전히 강건하지 않지만, 이슬람으로 재-개종하였음에도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박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0일(목) 한국오픈도어(Open Doors)

오픈도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도우심 속에서 사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이사장 및 공동대표: 김성태 교수,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 사무총장: 이종만 목사, 이사분들, 사역자들).

- 한국오픈도어가 전세계 핍박 받는 교회들을 위한 애타는 심정과 진심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모든 후원자 분들과 기도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